



가축개량은 축산의 기본!

가축개량 없이 축산의 미래를 기대 할 수 없다.

한경대학교 최일신 총장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를 향하여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4년 제 국립대학, 평택항과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 열리는 서해안 시대의 배후지역이라는 지역성 특성을 확보하고 고도의 생명정보 첨단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경대학교 최일신 총장. 그의 축산에 대한 견해와 교육방침 등을 들어 보았다.



▶ 대학 설립취지와 교육 방향

각 산업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공무원, 관련기관 및 조합 등에 투입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대학으로 이론을 겸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함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다. 특히 산업장래를 예측하여 5~10년 후를 내다보고 앞서가야 한다는 원칙아래 한경대에서는 6~7년 전부터 국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비중을 두고 연구 한 결과, 요즘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즉 새로운 시험이나, 산업관련 기술에 대하여 농민과 정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대학에서는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축산분야의 교육방향과 지원계획

타 대학에서 축산분야를 포기해 유일한 대학이 되더라도 한경대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키겠다

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존재해야 한다. 다소 규모가 축소되고 종사하는 인원은 줄 수 있지만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축산업이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축산방향은 친환경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볼 때 본 대학에서는 축산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의와 열의가 없는 농가는 미래가 없을 것이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가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 축산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

외국에는 축산 기술지원센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부에서 특성화자금을 지원 받아 건립하게 되었다. 농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타 기관과의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축산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현재 교수들의 업무가 많아 축산 농가들이 기대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머지않아 교수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학의 장단점

농대의 경우 안성에 위치해 현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교육효과가 배가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7년 정시 경쟁률이 19:1을 기록해 우리나라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 평택시에 있는 재

활복지대학과 통합예정에 있어 일부학과는 수원 등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중앙유성분 분석소 설치



지난 3월 29일 중앙유성분 분석소 현판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낙농산업에 큰 이정

표라 할 수 있다. 유성분 분석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담당하고 자료의 가공·분석을 통한 대농가 컨설팅은 한경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들에게 정확한 자료제공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낙농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현실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축개량의 필요성과 방향

일본에서 연수할 때 젖소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개량과 사양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젖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유방과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형 또한 우수하였다. “바로 이것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낙농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가축개량은 축산의 기본이다. 가축개량 없이 축산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가축개량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일본은 305일 2만kg 이상의 유량을 생산하는 젖소들이 즐비한 실정을 볼 때 우리나라 낙농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캐나다, 미국낙농이 본토를 떠나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후진국을 지원하는 등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미래의 한국축산에 대한 전망

축산의 미래가 어둡다고들 하는데, 어두운 것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개척하기에 따라 변화한다. 즉 '한국축산의 미래가 힘들것 이다' 라는 것은 예측일 뿐이다.

한우고기가 미국 수입육에 비하여 생산 이후 떨어지는 도축시기, 숙성, 유통관리에 대하여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비싸서 못 먹거나,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한우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면 우리나라 축산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지 말고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축산을 사랑해야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산이 되지 말아야한다.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바라는 말

가축개량사업을 담당하는 농민 스스로의 단체로서 국내시장 업무에 국한하지 말고 시시각각 변화는 국제정보를 공유하고, 후진국에게는 도움을 주는 국제화된 조직으로 거듭 발전해야 한다.

또한 축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축개량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하며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축개량 업무를 추진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역량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바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 발전을 기대한다.

●취재 : 윤현상 부장

